

제 94 호

연중 제 24 주일

(강림 후 15)

1974. 9. 15.

순정이

발행인 김 영 일
인쇄인 함 승 천
주간 조 성 호
편집 한 상 갑

편집실 : 전주시 서노송동 601번지
가톨릭센터 내 (전화 ③3498)

【강 료】

잃어버린 개



김 영 일 신부

오늘 성경에 잃어버린 아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은전에 대한 그리스도 비유를 들었습니다. 천주께서는 회개하는 죄인에 대해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자비깊은 이야기들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 기쁨으로 그치지 않고, 잃어버린 은전으로 다시 강조하시고, 마침내 탕자까지 찾으심으로 천주님 혼자만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까지 즐거워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왜 그렇게 우리들의 회개를 기뻐하실까!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며칠전에 우리 집에 개 한마리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개가 크고 무서운 놈이라서 그개가 으르렁대며 엄포를 하니 생뚱을 싸면서 쫓겨갔습니다. 쫓겨서 똥싸놓은 틈에 끼어 밤을 지낸것 같습니다. 밤에된 일이기 때문에, 아침에 그개를 찾아도 보이지않기에 담벽을 뛰어넘은 출만 알았습니다. 신옹초합 강양이 와서 자기집 개가 어머니 따라 나갔다가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이야기 하기에 사무장이 다시 찾아 돌봄에서 발견하고 와서 보라니 개와 강양이 서로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장면은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십여년전 모 본당에 있을때 어미개가 새끼개를 데리고 밖에 외출을 갔는데 올때는 어미 혼자만 들어오고 새끼를 잃은것 같습니다. 사방에 찾아도 없던 새끼개가 3일 후에 다른개들과 같이 논다기에 가보니 우리 새끼개였습니다. 그개를 품에 안고 집에 돌아오니 어미와 새끼가 서로 활짝웃고 서로 냄새맡고 어쩔줄을 모르고 반기는 걸 보았고, 그 새끼는 어미가 밖에 나가던 문까지 따라 나왔다 되돌아와서 어미가 올때까지 문에서 기다리곤 했습니다.

잃어버린 두 개를 생각해보면 분명히 자기 주인을 그렇게 반겨하며, 주인의 마음도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을 뿐더러,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관심이 없을 것인데도 공연히 찾았다고 이야기하고싶은 심정입니다.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 문득 그 생각이 납니다. 천주님은 우리 전부의 아버지시고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아버지결을 떠났을 때에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과 기다리다 돌아올때 그 기쁨,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고 회개해서 돌아오는 아들을 볼때 얼마나 기쁘면, 오늘과 같은 비유로서 말씀하듯이 살찐 소를 잡고 금가락지를 귀걸이 정도로 아버지의 기쁨을 표현해주시는 것일까요!

반면에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해주는 것은 바로 실망과 낙심과 과오에 대한 고집입니다. 천주님은 오늘 성경에서 누구든지 잘못을 뉘우치는 자 유다스같은 죄인이라도 자애깊은 아량으로 받아줄 뿐더러 기뻐하실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서학동교회 주임신부)

* 이 주일의 미사 *

(1)개회식

□**입당송** 당신을 고대하는 이들에게, 주여, 평화를 주소서. 이에 당신 예언자들의 진실함이 드러나리이다. 당신의 종, 이 백성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2)말씀의 전례

□**제1독서** (출애굽기 32:7-11, 13-14, 경향잡지 9월호 P. 67)

야훼께서는 당신 백성에게 예고하신 재앙 때문에 측은히 여기셨다.

□**창세송** ◎내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하느님 자비하시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애련함이 크오시니 내 죄를 없이 하소서. 내 잘못을 말끔히 씻어 주시고, 내 허물을 깨끗이 없애 주소서. ◎

□**제2독서** (데로테오 전서 1:12-17, 성서 P. 476)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하러 오셨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과 화해하시고 그 화해의 이치를 전하라 우리에게 말기셨도다. 알렐루야.

□**복음** (루가 15:1-32, 성서 P. 171)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 나라에 기쁨이 있으리라.

□신자들의 기도

1. 그리스도여, 당신의 생애는 받기보다는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반대입니다. 이 시대처럼 크리스찬 가족들이 당신안에 하나로 뭉쳐야 할 필요를 느끼는 때도 없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해받기 보다는 이해할 줄 알게 하소서. ◎주여.....

2. 진리와 정의를 위해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도 그들과 함께 고통을 나눌 줄 알게 하소서. ◎

3. 주여, 당신의 순교복자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들의 용덕이 아름답게 꽃피게 하소서. ◎

+주여 비오니,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시는 당신이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 주.....◎아멘

(3) 성찬의 전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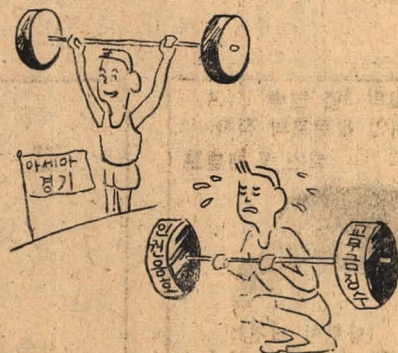
□봉헌

□성찬식

□**영성체송** 감사드리며 마시는 이 작은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이요, 이 빵은 그리스도의 살을 먹음이어라

(4) 폐회식

* 순정이 산책 *



국내에서는 합석 메달.
테헤란에서는 금 메달

□ 목자의 소리 □

복자 성월을 맞이하여

한국 천주 교회사

김 영 구 신부

九월은 우리 순교 선열의 달이다. 이 땅에 복음의 씨를 뿌리기 위하여 우리 선조들은 고귀한 생명을 희생하고 선혈로 이 강산을 물들였던 것이다.

순교자들의 의혈은 밀거름이 되어 복음의 씨는 이 땅에 뿌리를 박고 자라서, 한 알의 씨가 오늘날 백배의 결실을 맺었다.

우리는 순교자들의 후손이다. 우리 혈관속에도 순교선열들의 피가 흐르고 있다. 순교자들의 후예란 자랑외에도 우리는 남다른 조상들의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다.

우리 순교선열들은 남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연구하고 스스로 실천하다가 제 발로 걸어서 멀리 북경까지 가서 영세입교 하였던 것이다. 귀국한 후에도 성직자 없이 평 신도들끼리 진리의 왕국건설에 목숨까지 바친 우리 조상 순교자들은 어찌 장하다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것은 순교선열들의 좋은 표양(表樣)이요, 또한 우리 후손들의 본받을 자랑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선열들은 쫓기는 몸이 될 때에는 정은 고향을 버리고 사랑하는 친척까지 이별하고, 일년내 가꾸어놓은 곡식 한톨 먹지 못하고 누가 기다리는이 없는 산, 들로 삶의 곳을 찾아 방황하다, 우리는 바로 그들의 후손이다.

낮선 곳에 자리를 잡으면 우선 자본이 적게드는 움기 굴을 만들어 살면서 이것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그 자습에 십어진 신앙을 잃을세라 조심 조심 지내던 선조들의 후손이다.

우리는 순교자들의 후손이다. 그 후손이라면 그 신앙과 열성을 분반아야 하겠다. 우리의 실 생활을 반성해보자! 양심이 두근거리지 않는가! 우리 선조들은 신부를 한번 뵈려고 수백리를 찾아가서도, 옆에 신부를 두고도 뵈옵지 못하고 돌아서던 때가 몇번이었던가!

오늘은 반대로 협조는 커녕 가지 가지로 괴롭히는 사 이비 교우들! 선교 순교자들을 양모, 행위개신하기를 비는 마음 간절합니다. 성직자 한분도 모시지 못한 우리 조상 순교자들은 당신들끼리 있는 힘을 다해서 전교했다. 우리는 어떤가? 전교를 하기는 커녕 우리 때문에 지장이다 되지 않는지!

순교복자 성월을 맞이하여 순교자들의 후손다운 실 생활을 다시한번 굳게 맹세합니다.

(전주시 교동 1가 132-4)

1. 천주교와 우리나라와의 접촉

1594년: 입진 왜란 때 중군한 세스페데스 신부가 입국하여 웅천에서 약 6개월간, 전쟁포로와 고아 구제 사업에 힘씀.

※ 입진 왜란 때 잡혀간 한국 사람들 가운데 권 원선 시요. 안토니오 코레아 등 많은 이들이 일본에서 순교하고 9명이 복자위에 오름

1644년: 청나라에 인질로 잡혀간 소현세자, 아담살 신 부와의 친교로 천주교 서적 등 전래

2. 학자들의 천주교 연구 및 입교, 교회 창설
1910년: 허균, 북경에서 12단 언어 와 배우고 암송

1777년: 정약전, 정약중, 정약용, 권일신, 이벽 등 천주교 교리 연구회 시작.

1783년: 이승훈, 북경에서 세례받음 (베드로)

1785년: 조선 천주교회 창설

① 김범우 (토마스) 집을 교회 집회소로 삼아 창설

② 가법적 계급 실시

◇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학자들이 천주교회의 성직 계급을 본떠서 스스로 조직한 성직 계급

◇ 주교에 권 일신, 신부에 이 벽, 이승훈등을 뽑음

3. 천주 교회에 대한 박해 시작

1795년: 주문모 신부 입국

1800년경: 1만여 명의 천주교 신자 생김

1801년: 신유 교난(순조 1년)

※ 이 누갈다 숲정에서 순교

※ 정식으로 사형받은 순교자만도, 300여명

1831년: 조선 교구 설정(교구장: 브뤼기에르 소 주교)

1836년: 외국 성직자 입국 시작

◇ 모방 나 신부, 샤스팡 정신부, 앙베르 범주교

1837년: 김대건, 최양업, 최방제, 마카오 신학교 입학

※ 9천 여 명의 신자 있었음.

1839년: 기해 교난 (현종 5년)

※ 79위 복자들의 대부분이 기해 교난의 순교자임.

1845년: 김대건 신부 서품, 46년에 체포되어 순교.

1846년: 병오 교난 (현종 12년)

1856년: 축청도 제천에 배론 신학당 설립

1866년: 병인 교난 (고종 3년)

※ 8000여명 순교 (공식적으로 기록된 순교자 2,000여명)

4. 문호 개방과 신앙의 자유

1882년: 한미 수호 통상 조약 체결 이후 신앙의 자유 얻기 시작.

제일 비싼 독일의 3년 연속 V.A.

번식 성적 1위인 판토호의 직자

렉스 V 해토프



仔犬분양 (입한전 애견)

문의처: 전화 ③7692(진북동 어은팔)

고 외 과 의 원

교 재 상(나자로)

TEL. ③ 7 4 2 5

서중.교육위원회 앞(진북동)

엄 소 아 과 의 원

엄 의 도(시몬)

TEL. ③ 6 8 5 9

서울은행 옆 이치과 뒤

□숲정이 소식□

병인 교난에

숲정에서 순교한 우리의 조상들

성명	순교당시		고향	순교일	비고
	나이	살던 곳			
조 화 서 (베드로)	52세	전주 소양면 성지동	경기도 수원	1866 12. 13	
이 명 서 (베드로)	46"	"	충청도 천안	"	
정 원 지 (베드로)	21"	"	충청도 진천	"	
정 호 문 (바로톨메그)	66"	전주 소양면 신리	충청도 천안	"	
한 원 서 (베드로)	31"	"	충청도 금정	"	
손 천 지 (베드로)	47"	"	충청도 천안	"	
조 윤 호 (요셉)	19"	전주 소양면 성지동	경기도 수원	1866 12. 23	조화서의 아들

※ 숲정이-전주시 진북동 (현재위치:전주 해성 중·고등학교)

＊ 특 보 ＊

숲정이가 전주시내 합동 주부로 발간된 지 52주만에 김제, 부안, 신태인, 정읍 천주교회(1지구)가 참여하여 그 모습을 달리해왔습니다.

이제 다시 그 모습을 새롭게하여 10월부터 전주 교구 주부로 출범합니다. 명실공히 교구의 주간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협조를 바랍니다.

교구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주교님과 교구내 제위 신부님, 각 본당 사도회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숲정이 편집실 아뵐

요심이 (60) 김병오



□양서안내□

아름다운 새벽

-마해송 지음

성 바오로 서원 (T. 2-7398)

＊이 주간의 성경＊

16<월> 성 교르넬리오 교황과 성 치프리아노 주교 순교 기념

독서(고린토 후서 4:7-15 성서 P.409)

복음(요한 17:11-1911, 성서 P.250)

17<화> 성멜라르미노 주교 학자 (5월 31일)

독서(고린토전서 12:12-14, 27-31 성서 392)

복음(루가 7:11-17, 성서 P.142)

18<수> 독서(고린토전서 12:31-13:13 성서 P.393)

복음(루가 7:31-35, 성서 P.144)

19<목> 성 야누아리오 주교 순교

독서(고린토전서 15:1-11, 성서 P.398)

복음(루가 7:36-50, 성서 P.144)

20<금> 독서(고린토전서 15:12-20 성서 P.398)

복음(루가 8:1-3 성서 P.145)

21<토> △ 성 마태오 사도 복음 사가 축일

독서(에페소4:1-7, 11-13, 성서 P.441)

복음(마태오 9-9-13 성서 P.18)

문 산부인과 의원

문 지 식(레나도)

TEL. ② 2 9 1 8

경전라사 옆 체신청 뒤

이 신경외과 의원

이 종 두(헨리고)

TEL. ② 2 6 4 6

아판원 옆. 구 대구집

교우들의

건강 상담과 물리 치료

...고혈압, 신경통, 해초전식, 지압...소화불량, 소아마비, 기타...병명 미상의 질환에 특효

김 용 택(모이세)

연락처:진북 고등 공민학교 옆 (진북 2동 1157의 10)

제 4 지 구 6 개 본 당 소 식

1. 수재민을 돕읍시다. (9월 6일자, 교구청 공문 제74-19호)
전남북 지방, 특히 남해안 일대를 휩쓴 집중 폭우로 인한 수재민을 크리스찬 형제애로 도움자는 교구청 공문이 발표되었다.
① 각 본당과 단체는 수재민을 위한 의연금을 정성껏 모아 조속한 시일 내에 교구청으로 보낼것.
② 심한 피해를 입은 소수 신자를 신속히 상황 파악하여 보고할 것.
2. 본당 순회 교육(주관: 사목 협의회, 기간: 9월 14일(토)-15(일)일)

분 당	강 사	분 당	강 사
김 제	김영신신부, 김규승, 김성원, 조성호선생, 김영희수녀	교 산	지정환신부, 천진, 한상갑선생 신영숙수녀
대 야	문정현신부, 조해형, 박춘곤선생, 김원식수녀	남 원	김종택신부, 이상용, 정주복, 이종숙선생

3. 사목 협의회 지도신부 개편(9월 6일자)

사목 협의회 총지도: 김종택 부주교

교구 사도분과 위원회: 김영일신부

교구 선교분과 위원회: 김병영신부

교구 교육분과 위원회: 김환철신부

교구 재경분과 위원회: 이대권신부

교구 사회 분과위원회: 박종근신부

교구 부녀 분과위원회: 함승천신부

4. 김 치삼(스테파노)신부님, 신병 치료차 도미

5. 대학생 연합회, 회지 발간을 위한 1일 다실(오늘 임금님 찾침에서)

공식미사 후 1일 다실 티캐(100원)판매가 있으니 많은 협조 부탁 드립니다.

6. 전주지구 가톨릭 중·고등 학생 회장단 회의(오늘 오후 2시, 중앙성당에서)

안전: 단합 체육대회에 관한 일 ※빠짐없는 참석바람

(중야)

전화 ②2651

②3874

주임 신부 이 대 권

보좌 신부 서 석 구

사도 회장 이 복 석

1. 사도회 정기총회(다음 주일 오후 3시)

교문, 임원, 구역장, 반회장, 신심단체 대표, 구역대표 전원 참석 요망

2. 애령회 정기총회(19일<목> 오후 4시, 사제관),

임원 전원 참석요망

3. 복자성월행사(오늘 오후 2시, 치명산 참배)

4. 주일학교 치명산 참배(다음주일 오후 2시)

① 성경책, 어린이 미사책 지참 바람

② 학부모님의 협조바람

5. 합동 위령미사(30일<월>오전 6시)

추석절을 맞아 부모, 친지들의 영혼이 안식을

누릴수 있도록 미사를 봉헌합니다.

6. 요리강습(오늘)

7. 필리핀 가족계획 강습

17일<화> 오전 10시~12시, 오후 2~4시

8. 애령회 회자금: 박종열씨 5,000원, 감사합니다.

□ 지난 주일 봉헌금 42,710원

수재 의연금 5,000원, 감사합니다.

(노송동)

전화 ④7032

주임 신부 함 승 천

사도 회장 조 해 형

1. 부녀부 월례회 (오늘 10시 미사 후)

2. 사도회 월례회 (다음 주일)

3. 주일 학교 학생 치명산 참배 (다음 주일)

공소와 본당의 주일학교 학생 합동 참배

4. 추수 감사절 합동 미사 (30일<월> 추석)

미사 예물 봉헌는 사무실에 접수 바람.

5. 성당 신축 헌금에 감사드립니다.

왕정 공소 김동철, 중도 2가 김안나(각1천원)

누계 1,522,497원

□ 주난 주 신축 성미 4달, 누계 214달 5되

지난 주일 헌금 19,755원, 감사합니다.

(덕진)

전화 ②8082

주임 신부 박 종 근

사도 회장 김 종 환

1. 사도회 확대 회의 (오늘 공식 미사 후)

공소, 회장, 구역장, 반장의 빠짐없는 참석 바람

2. 수재민에게 형제애를 발휘합니다.

모아진 의연금품: 의류 50점

□ 지난 주일 헌금 8,600원, 감사합니다.

(북자)

전화 ②5238

주임 신부 오 기 순

사도 회장 조 성 호

1. 교무금을 완납 합니다.

하느님께 약속하신 교무금을 9월 안으로 필히 완납하시어 교구와 본당 운영에, 또 연말 결산에 의무를 다합니다.

2. 신용 조합 월례회 (오늘 공식 미사 후)

조합원 전원 참석 바랍니다.

3. 영세식 (21일<토> 오후 7시반 미사 후)

대부·대모를 모시고 시간내에 준비합니다.

4. 애령회 정기 총회 및 피정 (내일 오전 10시)

준비물: 미사준비, 목주, 연도책, 도시락

5. 사도회 정기총회 (다음 주일 공식 미사후)

□ 지난 주 성미 2달 8되, 누계 307달 2되

지난 주일 헌금 13,900원, 감사합니다.

(서학동)

전화 ②2276

주임 신부 김 영 일

사도 회장 이 거 영

1. 결산 보고와 예산 편성 (다음 주일 오후 2시)

사도회 회원 전원, 구역장, 공소회장, 반장님들의 참석 바람.

2. 교미시음 회합 (오늘 1시반, 전동)

3. 미납된 교무금을 이달안에 완납합니다.

4. 수재민 구호금 모금 (오늘 미사 후)

교동반은 형제들을 위해 성심성의껏 협조합니다.

5. 신용조합 미사화 (20일<금> 오후 8시반)

□ 지난 주일 봉헌금 9,875원

수해 의연금 7,585원, 감사합니다.

(전동)

전화 ②3222

주임 신부 김 환 철

보좌 신부 정 승 현

사도 회장 송 재 진

1. 부부 예비자 교리 (매주 월요일 저녁 미사후)

2. 중·고등학생 예비자 교리 (매주 일오후 2시)

3. 교미시음 월례회 (오늘 오후 1시반)

4. 고 켈마(타석)선생님, 주일 학교 1일 교장

5. 누갈다 모지 참배 (집합장소: 성당)

① 주일학교...오늘 9시 미사후

② 중·고등학생...21일<토> 오후 4시

6. 9월은 1년 살림을 정리 하는달, 교무금을 완납

합니다.

7. 수재민 돕기에 적극 협조합니다.

금주의 숭정이 은인께 감사 드립니다.

이 힘 재(오셀) 서완산동 구역장

□ 지난 주일 봉헌금 42,445원

애령회 특별헌금 8,260원, 감사합니다.